

한마음도서관 이야기

2025년 통권

26



Contents

Vol. 26

01 여는 글

-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02 함께하는 영광

- 함께 읽는 독서공동체 : 사유의 확장
- 배움이 즐거운 문화아카데미
- 미래를 열다 : 어린이 독서문화진흥
- 창의 독서 활동 : 나는 동화작가

03 축제의 땅

- 시즌 행사 소식
- 집 나온 힙(hip)한 도서관
-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도서 전시

04 2025 특별기획

- 혼불, 문학의 숨결을 찾아서
- 기억하라 1945, 응답하라 2025

05 미래를 읽고, 세대를 잇다

- 국회국회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 기증
- 독서소외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문화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도서관

06 도서관의 변화

- (독서편의 개선)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
- (독서자료 다양화) 세계문학전집 코너 신설
- 도서관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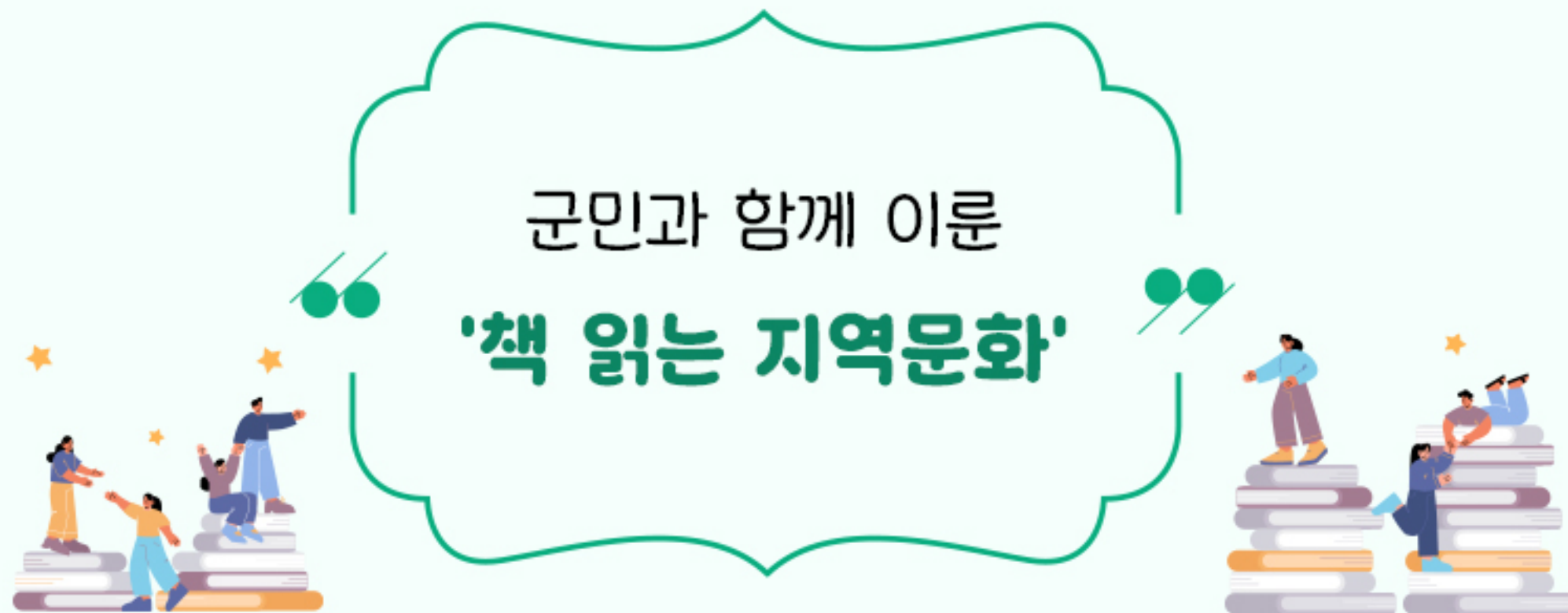
07 글마당

- ‘과연 그럴까?’가 ‘나도 할수 있다’로
동화작가 유별나
- 가을, 윤동주 時의 울림을 듣고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 한마음도서관 회원 이원필

08 독서편의 서비스

-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독서환경

발행년월	2025년 12월
발행처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11
대표전화	055-940-8470
편집, 디자인	모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찬 바람 속에 따스한 지혜의 온기를 담아 군민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마음도서관은 책 읽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군민의 독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실현하고자 경남도내 군 지역 최초로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제17회 평생학습축제 '집 나온 힙(hip)한 도서관' 부스를 운영하며 독서 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도서관 밖에서도 책과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자료 확충, 독서공동체 활성화 지원,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 시대정신을 담은 다양한 행사 등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조성이라는 도서관의 본연의 핵심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도서관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덕분입니다.

저희 한마음도서관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책 읽는 거창' 구현을 위해 독서환경을 선도하며 군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지식문화 쉼터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책과 함께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도 도서관에서 자주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드림



독서문화 확산

● 함께 읽는 독서공동체 : 사유의 확장 ●

저희 한마음도서관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독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읽기 버거웠던 책이나 깊이 있는 주제도 여럿이 함께 모여 나누면 훨씬 즐겁고 의미있는 경험이 됩니다.

개인적인 학습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군민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을 통해 개인의 '깊은 사유'가 공동체를 만나 더욱 풍성해지고 독서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확산 되도록 한마음 도서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함께 읽는 즐거움과 개인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독서 공동체 활동은 거창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형태별 소개와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독서동아리

- 한마음그림책
- 한마음독서
- 독서토론
- 달팽이북클럽
- 시니어북클럽

고전의 가치 개발권

-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
- 매월 1, 3주 목요일
19:30~21:30
3층 미디어창작실

대하소설 완독챌린지

- 슬기로운 완독 생활[혼불]
- 매월 2, 4주 목요일
19:30~21:30
3층 시청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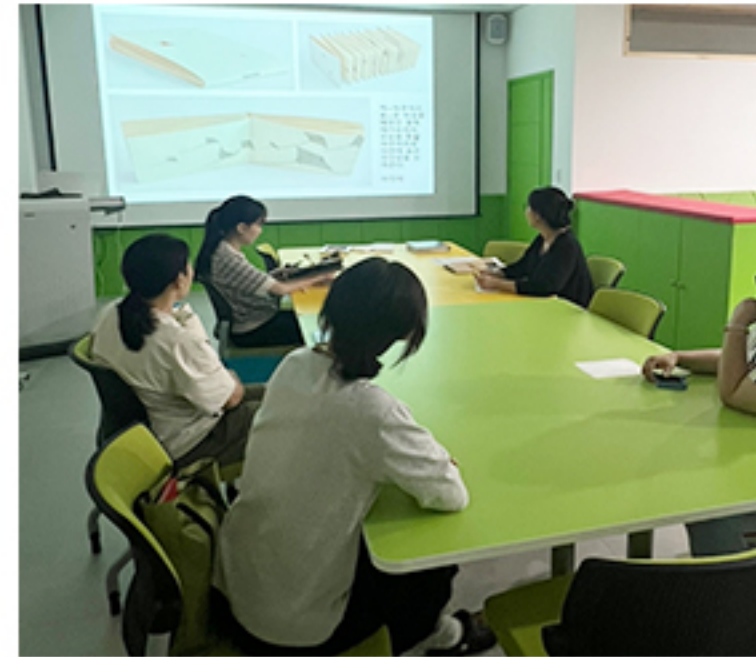


독서문화 확산

배움이 즐거운 문화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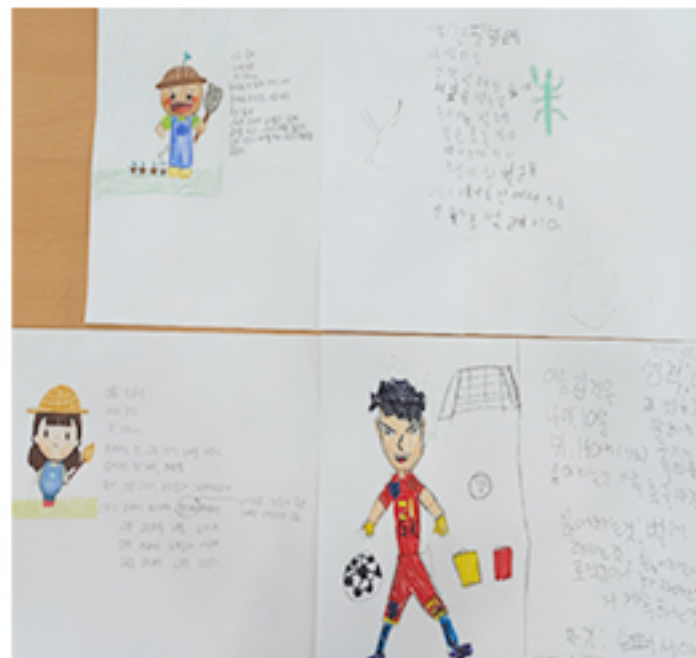
문화강좌(성인)

군민의 취미소양 및 자기계발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니어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주역, 자수, 보타니컬아트 등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림책 작가 이지연과 함께 일러스트 기법 배우기, 시 낭송, 디지털드로잉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배움의 즐거움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토요특강 / 먼데이클래스(어린이)

어린이들이 독서를 기반으로 창의성과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학기간과 주말을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말에 진행되는 토요특강과 방학기간을 활용한 먼데이클래스를 통해 역사, 과학, 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린이들의 창의력, 사고력, 지적 호기심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확산

미래를 열다 : 어린이 독서문화진흥

체험형 어린이 동화구연

한마음도서관에서는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연계하여 독서프로그램 '체험형 어린이 동화구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꾸준히 이어온 저희 도서관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책을 배경으로 한 영상 속에 아이들의 모습을 투영하여 책 내용을 더욱 현실감 있고 생생하게 느끼도록 기획했습니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기관 단위로 한마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독서 경험을 선물하고 싶은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북스타트 특강

북스타트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란 취지로 아기와 부모가 그림책을 놓고 깔깔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진행한 북스타트 특강은 총 86회 690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날

매주 토요일 11시에 시작하는 ‘책읽어주는 날’은 이야기할머니와 독서동아리 회원이 주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책을 직접 읽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책과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독서 흥미를 높이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총 46회 25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초등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초등 북스타트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대상으로 책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언어적·감성적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림책 2권과 독서 가이드 북이 담긴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한마음도서관은 관내 초등학교 17개교를 방문하여 1학 년생 285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초등북스타트 독서감상화 전시

2025년 초등 북스타트 독서감상화 전시회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17회 평생학습 축제 스포츠파크 호수 공원 일원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관내 17개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5월에 배부한 북스타트 도서를 읽고 느낌을 그린 감상화 중 30 점을 엄선하여 전시회를 열었으며, 그 외 작품은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갤러리에서 아이들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인구

창의독서활동 : 나는 동화작가



성인을 위한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인 <나는 동화작가>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별나 동화작가의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동화창작의 전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참가자 10명은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각자의 개성이 담긴 총 10권의 동화책을 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들의 성과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출간기념회를 개최했으며 도서관 1층 북카페와 제17회 평생학습축제 '집 나온 힙(hip)한 도서관' 부스를 통해 동화책 10권을 전시하여 군민 누구나 작품을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는 창작의 기쁨을 경험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한마음도서관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마음도서관 종합자료실에 비치되어 누구나 대출 가능합니다.





● 열정으로 빛어낸 10권의 동화책 : 창작의 기쁨 그 진솔한 소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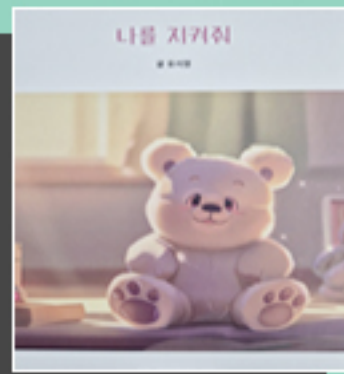
까만 손톱



우연히 알게 된 '나는 동화작가' 현수막을 보고 무작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글감을 찾고 글을 쓰고 다듬는 동안 알 수 없는 설렘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구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색다른 경험에 기뻐했습니다. 앞으로의 기억에 좋은 시간으로 오래 남을 것임을 짐작했기 때문이겠지요. 좋은 수업 준비해 주신 한마음 도서관 관계자분들,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선생님들, 그리고 유별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효진**

선생님의 친절한 수업을 통해 동화책 쓰기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에게 잘 모르는 분야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열정적인 수강생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동화책에 대한 애착이 많이 생기고 뿌듯했습니다. 아이들도 동화책을 보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보람찬 것 같습니다. **공대현**

나를 지켜줘



'나는 동화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안의 감정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법을 배웠고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를 지켜줘>는 친구관계로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곰인형이 새까매지는 예린이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입니다. 독자분들은 예린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서영**

아이들과 나눈 추억의 숫자는 부모의 나이 들과 비례해 잊혀 가는 게 아쉬워,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힘에 부칠 때 부모와 함께 한 따뜻한 사랑의 추억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람으로 선택한 글감입니다. 인류에게 큰 사랑을 준 옥수수처럼 아이들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동화입니다. 설렘과 두려움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으나 완성을 목표로 '쓰고 고치기'의 꾸준함으로 이뤄낸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인생의 소중한 순간과 아름다움을 허공으로 날려 보내고 싶지 않고 추억의 가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이영애**

도시아이 시골살이



나는 오빠가 쌍둥이라서 어릴 적 외갓집에서 증조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삼촌과 함께 지낸 외갓집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동화 속에 담아보았습니다. 도시아이 (전주시 교동) 시골살이(김제시 용지면) 처음 써보는 동화(글)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림을 그려주신 김순기 선생님 도움으로 첫 동화작품이 되어 감사 드립니다. 한마음 도서관 정영화 선생님, 지도해주신 유별나선생님 함께한 작가님들 행복한 날이 계속 되기를 기원 합니다 **이미경**

책장 너머로 세상을 만나는 일, 그 설렘과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읽기'와 '쓰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더군요. 독자로 살아오던 나에게,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제 첫 동화책을 출간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아이들을 떠올리며 쓴 이야기가 이렇게 책으로 나오니 아직도 꿈같습니다. 함께 도와주신 도서관 선생님들과 작가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어린 독자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백연희**

빵중영양사와 두집구리



"엄마, 아빠 책이 도서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나는 동화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일이었지만,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동화를 즐겁고 재미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지인들에게 보여줄 때면 뿌듯함이 더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한마음도서관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조은주**

꽃과 나무를 좋아해서 꽃밭을 가꾸고 있어요. 지난해 외손자 현이가 태어났어요. 현이가 자라 꽃밭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함께 꽃을 가꾸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썼어요. 현이와 이 글을 읽는 아이들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꽃밭을 가꾸듯이 자신의 꿈도 키워 가기를 바랍니다. **우영혜**

여름아, 캠핑 가자!



'나는 동화작가'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의 어린이들과도 그 걸을 같이 할 수 있겠다고 느꼈지요. 어른들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름이들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아이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오롯이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면서요. 이제 자신만의 진짜 캠핑을 떠나세요. **박혜린**

제 동화책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책을 읽는 모두가 민들레와 대화하는 꿈같은 상황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기가 필요한 순간, 제 책이 생각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민지**

오빠는 개구리 괴물



옥수수 사랑



책이 재미있다고?



현이의 꽃밭



혼자여도 괜찮아?



도서관의 패발권

4월 : 도서관의날 · 도서관주간 행사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강연,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지적 호기심 충족과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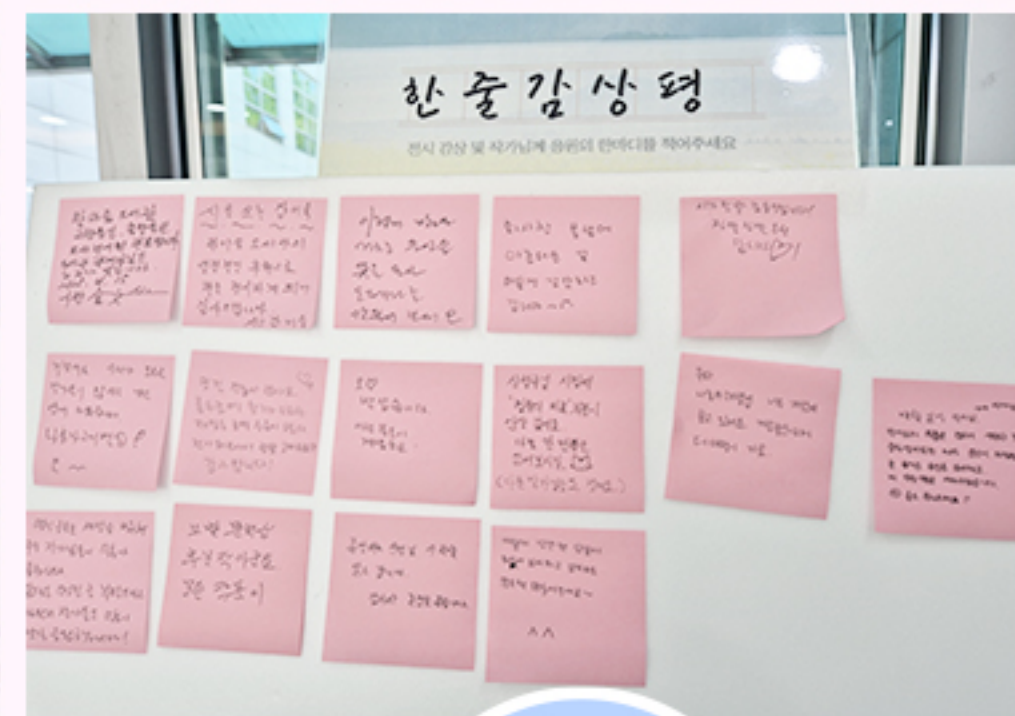
서은국교수 초청 강연

행복연구가 서은국 교수를 초청하여 ‘행복을 위한 인생 청사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행복의 추상적 개념을 과학적 근거로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행복의 지도가 있다면 오늘 그한 길을 발견한 것 같다”는 감상평을 남기며 강연의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뜻깊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겠습니다.



거창출신 및 거창활동 작가 도서 전시

지역 문학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거창 출신 및 지역 활동 작가 도서 전시 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거창 출신 대표 작가인 신달자, 신용목 작가를 포함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30여 명 작가의 다양한 분야의 도서 80여 권과 간단한 약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지역 작가와 그들의 책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군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시 종료 후 한마음도서관 종합자료실 ‘지역작가 코너’에 비치되어 있으며 군민들이 지역 작가의 작품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책 속에 갇힌 고양이> 공연 개최

퀸터 야콥스의 동명 그림책을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 ‘책 속에 갇힌 고양이’를 개최했습니다. 관객이 직접 이야기에 참여하고 함께 춤추는 등 관객 참여형 뮤지컬로 진행되어 어린이와 가족 모두에게 특별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도서관의 패발권

시즌행사 : 9월 독서의달 행사



가족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통해 유대감을 높이고, 도서관을 책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범다독자 시상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매년 모범 다독자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독서의 달을 맞아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한 다독자 3명에게 군수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어린이들에게 큰 성취감과 독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책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호연 작가 초청 강연

베스트셀러 소설 『불편한 편의점』, 『나의 돈키호테』의 저자 김호연 작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설가의 삶과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소설가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부터 무명 시절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경험, 그리고 작품 탄생 비하인드를 담담하면 서도 유쾌하게 풀어내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연을 통해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작가님의 열정적인 삶의 태도에서 큰 영감과 위로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동화작가 출간기념회 & 동화책 전시

동화창작프로그램 '나는 동화작가'에 참여한 수강생 10명의 동화책 10권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수강생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화책 전시가 동시에 진행되어 감동을 더했습니다. 예비 작가들의 가족, 지인들이 함께 모여 출간을 축하하고 소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수강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족영화극장 별밤시네마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가을밤을 즐길 수 있도록 '별밤 시네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가족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원한 밤공기와 함께 야외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가족 영화를 관람하며 일상 속에서 벗어나 특별한 문화적 즐거움을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서관 야외 공연장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제의 땅

• 집나온 힙(hip)한 도서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과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거창군 스포츠파크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7회 평생학습축제에서 『집나온 힙(hip)한 도서관』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집나온 힙(hip)한 도서관』 부스는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방문객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잔디밭 위에 마련된 야외도서관에는 빈백과 돗자리, 다양한 도서가 준비되어 행사기간 동안 자유롭게 독서와 휴식을 즐겼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이용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서울에서 볼 수 있던 야외도서관을 거창에서도 즐길 수 있어 좋았다”, “잔디밭 위에서 책을 읽는 경험이 새롭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등 총 900여명 참여하여 ‘도서관 삼행시 짓기’, ‘나에게 도서관이란’, ‘도서관에 바란다’의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고 룰렛을 돌려 필사노트, 키링, 손목밴드, 음료수 등 체험 기념품을 증정받았습니다. 룰렛을 돌리는 순간마다 환호와 웃음이 부스를 가득 매워 현장을 더욱 활기치게 만들었습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에는 초등 북스타트 독서감상화와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아틀리에 자수, 보타니컬 아트, 창작 동화책, 어반스케치 등 70여 점이 전시되어, 배움과 독서가 빚어낸 창의적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축제장을 오가며 작품을 감상한 관람객들은 어린이 들의 순수하고 창의력 넘치는 작품과 성인 수강생들의 섬세하고 전문적인 작품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된 이번 『집나온 힙(hip)한 도서관』 행사에 참여하여 즐거워하시는 군민 여러 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도서관은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과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책을 읽는 실내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일상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2026년 인구

•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도서 전시 •

2025년 노벨문학상 발표를 기념하여 군민들의 높아진 문학적 관심을 반영하고 세계문학의 흐름을 조명하기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한마음도서관 2층 로비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도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근 3년간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대표 도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노벨문학상이 지닌 보편적 의미와 인류적 가치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를 넘어 세상을 연결하고 공감과 이해의 길을 여는 문학의 정신을 담아 '세계를 잇는 문학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시 작품 하나하나가 관람객들의 마음속 작은 울림을 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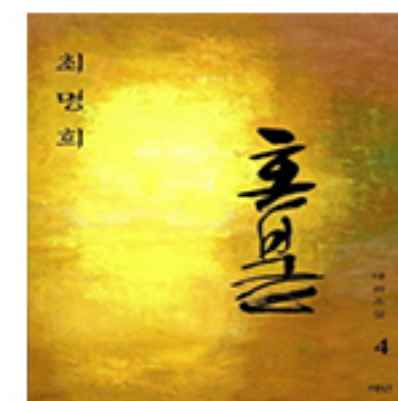
전시 도서로는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크러스너호르케이 라슬로의 「사탄탱고」 등 6종, 2024년 수상자 한강의 「소년이 온다」 등 5종, 2023년 수상자 욘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 등 5종을 포함해 총 16종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 수상 선정 사유, 작품 해설과 줄거리 등을 함께 제공하여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기획

• 혼불, 문학의 숨결을 찾아서 •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은 방대한 분량과 깊이 있는 서사로 인해 완독이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이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책을 완독하는 독서 활동과 소설의 주요 배경지를 탐방하는 문학 기행을 연계하여 독서의 깊이를 더하고 완주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도서관 밖 인문학 : 혼불의 배경지 서도역을 걷다

'도서관 밖 인문학' 탐방을 통해 참석자들은 혼불문화관과 서도역 등 작품의 실제 역사와 배경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소설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혼불문화관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소설의 주요 무대인 서도역을 직접 걸으며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 그리고 작품 속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독서 활동은 작품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이고 완독할 강력한 동기를 마련했으며 참석자들은 "잊고 지냈던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떠올렸고, 꼭 '혼불'을 완독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히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슬기로운 완독생활 - 혼불

한편, 도서관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슬기로운 완독생활-혼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대한 분량의 대하소설 <혼불>을 참가자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완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읽고, 역사를 걷다

기억하라 1945, 응답하라 2025

광복 80주년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기념하여 도서관에서는 역사적 테마에 맞춘 특별 연계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역사의를 고취하는 서경덕 교수 초청 특강,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동주를 듣다' 북콘서트 그리고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 탐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1945년의 역사적 순간에 2025년 우리의 응답을 더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문화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서경덕 교수 초청 특강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실질적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서경덕 교수 초청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한국 문화와 역사 홍보,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한국을 세계에 알린 생생한 경험담과 성공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전달하여 참여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통해 높아진 K-문화 위상에 발맞춰 우리 역사 및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홍보 전략을 공유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북콘서트 '동주를 듣다'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고결한 문학 정신을 기리는 북콘서트 '동주를 듣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소망했던 시인의 깊은 감수성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 되었습니다. 북콘서트는 윤동주시 낭송과 시에 곡을 붙인 가곡 그리고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로 시인의 감성을 입체적으로 전달했으며 특히 도서관 프로그램 '낭송의 품격' 수강생들이 직접 시를 낭송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도서관 밖 인문학 : 운동주 유고 보존가옥

‘도서관 밖 인문학’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시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원고를 지켜내 세상에 빛을 보게 한 후배 정병욱 교수의 고택을 방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유고를 지켜낸 송고한 정신이 깃든 역사적인 공간을 찾아 시인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 걸으며 문학적 영감을 얻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마음도서관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미래를 읽고, 역사를 걷다

● 국회도서관 : 글벗나래 작은도서관 도서 기증 ●

글벗나래도서관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기증도서 700권을 기증받아 9월 5일 금요일 청소년문화의 집 1층에 위치한 글벗나래도서관에서 도서기증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증식에는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신성범 국회의원, 이재운 군의회의장 및 도, 군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기증처인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한재구 정보봉사국장 등 국회도서관 관계자도 함께하여 뜻깊은 기증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회도서관 도서지원 사업은 현직 국회의원이 추천한 작은도서관 등 정보취약기관에 700권을 기증하는 사업으로, 지역 신성범 국회의원의 추천으로 글벗나래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소중한 책을 기증해 주신 황정근 국회도서관장님과 글벗나래도서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신성범 국회의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도서기증을 통해 글벗나래도서관이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의 장으로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글벗나래도서관은 2017년 1월 청소년문화의 집 1층에 개관하여, 월평균 800여 명이 찾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이 활발하고 8,4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잇고, 세대를 잇다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문화

찾아가는 이야기 책방

한마음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독서 소외 계층 시니어를 위한 '찾아가는 이야기 책방'을 운영했습니다. 관내 노인복지기관 6개 기관을 선정하고 독서활동가 2명을 파견하여 책을 읽어 드리는 것은 물론 함께 체조, 만들기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곁들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책을 통해 삶의 재미와 긍정적 에너지를 얻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사서와 함께 하는 책놀이

2025년 3월부터 시작한 '사서와 함께하는 책놀이' 활동은 작은도서관이 소재한 위천어린이집, 가조어린이집, 소만작은도서관 어린이들 대상으로, 사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림책을 감상하고 다양한 독후활동 체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단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책과 친해지기 위한 기회와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실적은 47회에 걸쳐 39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을 잇고, 세대를 잇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도서관

한마음도서관은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확대를 통한 군민의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인도서 반납기를 스포츠파크, 보건소, 수송대, 웅양면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선진화된 시스템 요구를 적극 반영한 올해의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도서관 간 언제 어디서나 도서 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24시간 중단없는 도서관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창군은 경남 도내에서 스마트도서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무인도서반납기 3개에서, 올해 4개가 추가되어 총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책두레)는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인 3권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올해 상호대차서비스 대출권수는 1,545권입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서관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의 확대, 공간의 완성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

군민의 독서 편의성을 증대하고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내 군지역 최초로 희망 도서 지역 서점 바로대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한마음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도서 중 이용자가 읽고 싶은 도서를 가까운 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마음도서관은 기존에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서비스 처리 기간이 30~60일 이상 소요되어 그간 이용자의 불편함이 많았고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서점에서 이용자가 빠르게 희망도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도서 제공기간이 3~14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용자는 거주지 가까운 서점에서 빠르게 희망도서를 빌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한마음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절차는 이용자가 신청한 희망도서가 도서관 자료로 구입에 적합한 도서인지 심사한 후에,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이용자에게 대출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문자를 받은 이용자는 서점을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하고, 다 읽은 도서는 한마음도서관으로 반납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가 가능한 서점은 거창읍에 소재하는 덕유문고, 책방소문 2개소이며, 신청권수는 월 1인 2권이며, 대출기간은 14일로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독서마로 다양화

세계문학전집 코너 신설

군민들의 문학적 관심 고조에 발맞춰 세계문학을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마음 도서관 종합자료실 내에 '세계문학전집 특화코너(이하 세계문학전집 코너)'를 새롭게 조성해 7월 9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이번 특화코너는 최근 한국의 대표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문학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도서관은 분위기를 반영해 군민들이 문학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고 즐기며, 지식과 교양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계문학전집 코너에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괴테 등 세계적인 문호들의 대표작부터, 이상, 김승옥, 황석영 등 국내 현대문학 작가들의 주요 작품까지 총 459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코너 이용시간은 한마음도서관 종합자료실 운영시간(월~목 9시~22시, 토·일 9시~18시)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의 변화

•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공간 개선 •

2025년에는 한마음도서관 건물 주변에 2개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도서관 동편 주차장 쪽 벽면에 장식되어 있던 인조 조경 넝쿨이 노후 되어 보기가 싫었던 것을 올 3월 말부터 1달여 기간에 걸쳐 징크 외벽포장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비는 약 4천만원 정도 들었고 현재는 주변과 잘 어울려 깔끔해졌습니다.

두번째로는 6월경 도서관 서쪽 편의 계단 공연장 부근이 노후 되어 지저분하게 보이던 것을 역시 공사비 4천만원 정도 들여 목재데크 공연장을 조성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연장이 만들어져서 9월에는 이곳에서 영화를 같이 보는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도서관 인근 주민분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한마음도서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가 ‘나도 할 수 있다’.로

<동화작가 유별나 / 나는 동화작가 지도강사>

동화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동화 공부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그럴까?

〈나는 동화작가〉프로그램이 올라온 게시판을 보고 과연 수강자가 있을까 내심 걱정되었다. 동화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오후 늦게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세상에! 수강자가 22명이나 되었다. 나중에 사서 선생님께서 신청자가 너무 몰려 중간에 접속을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화를 써 보겠다고 신청하신 분들께 감사했다.

첫 수업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동화책을 읽다가 써보고 싶어서 신청하신 분, 본인의 일에 관한 동화를 쓰고 싶은 분,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 신청하신 분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엄마들이 모였다. 동화작가 강의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처음으로 아빠도 신청을 했다.

서로 다른 생활을 하다 처음 만난 수강자들. 짧은 글로 시작해서 동화일기 쓰기, 다른 동화 읽어보고 이야기 늘어쓰기, 그림 보고 글 써보기,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자녀들의 이야기를 쓰며 자신 없어 하던 수강생들이 차츰 흥미를 느껴갔다. 말도 안 될 거 같았던 글에 새로운 이야기를 넣었다. 초보 동화를 쓰고 서로의 글에 합평도 하며 이야기를 다듬어 갔다. 한 편의 예쁜, 즐거운, 행복한 동화가 완성되었다.

완성된 동화를 읽으며 뿌듯해하는 모습에 나도 즐거웠다. 하지만 더 힘든 난관이 남아있었다. 동화에 넣을 삽화를 그리는 게 문제였다.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려보고 처음 그려본다는 수강생부터 그림 걱정에 잠도 못 자겠다는 수강자도 있었다. 막상 삽화를 그리기 시작하자 그림책을 따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시에게 도움도 받으며 어렵게 삽화를 그리면서도 얼굴은 즐거웠다. 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 서로의 그림을 자랑하느라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수강생들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렸다. 동화책이 완성되었다.

‘과연 그럴까?’는 ‘나도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강의를 하는 3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참여하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나는 동화작가〉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화를 읽을 아이들의 웃음을 상상해 본다. 책장에 꽂혀 있는 자신의 동화 책을 보며 미소짓는 나는 동화작가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을, 윤동주 時의 울림을 듣고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 가다!

<한마음도서관 회원 이원필>

윤동주 서거 80주기 기념하여 한마음도서관 북콘서트 [동주를 듣다]에 이어 '도서관 밖 인문학'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 탐방을 다녀왔다.

시월의 마지막 날, 하늘과 바람과 별과 時 [동주를 듣다] 1층 북카페 공연장을 찾았다. 그 고요한 울림 속에서 북콘서트는 마치 시간의 곁을 천천히 쓰다듬는 듯한 공연이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맑고 고운 소리로 낭송되고, 선율이 흐를 때마다 공연장은 고요했지만 깊은 울림으로 가득 찼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으로 활동하시는 낭송의 품격팀은 이름 그 자체가 긴 여운을 주며, 한 분 한 분 낭송할 때마다 그의 시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깊은 감성의 무대를 만나는 것 같았으며 정은선 성악가의 시를 노래로 불러준 '서시'는 첫 음부터 울려 퍼지는 순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그 한줄이 진심처럼 울려 나올 때, 마치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된 듯 했다. 노이트리오의 연주 바이올린은 맑은 빛처럼 선율을 열어주었고, 첼로는 깊은 바다처럼 울림을 더해줬으며, 그 사이를 흐르는 피아노의 리듬은 부드럽게 감싸며 무대 위에 한 편의 풍경을 펼쳐주는 듯 눈을 감고 들으니 더욱더 따뜻하고, 클래식 연주의 깊은 울림이 나를 설레게 만들었다.

깊은 감동을 더 이어가고 싶어 '도서관 밖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 탐방을 신청하여 11월 6일 날씨 참 좋은 날 광양으로 향했다. 전라남도 광양의 섬진강변 망덕리 정병욱 가옥은 시인 윤동주의 유고를 보존했던 집이다. 해설사분이 재미있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몰랐던 이야기들도 알게 되어 더 귀를 쫓긋 세우며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었다. 가옥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시인이 더 그림고, 그곳에서 바라본 망덕산과 포구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또 들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윤동주, 정병욱 이 두 분의 관계는 학창 시절 캠퍼스 생활을 같이한 길벗이었고, 나이 차이는 있지만 좋은 글벗이었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우정이 영적으로 이어진 영벗으로 그의 시집이 잘 보존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만나볼 수 있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스토리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광복 80주년이자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년이 되는 해로 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뜻깊은 해로 연계하여 참여해 보니 우리 동네 도서관! '한마음도서관'이 참 소중한 공간임을 새삼 느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시인과 만나는 장소였고, 군민들이 함께 나누는 장이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만난 윤동주의 시와 그의 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희망과 위로를 건넨다. 윤동주의 시 한 줄처럼,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삶도 조금 더 깊고 따뜻해지기를 바래 본다.



야간 도서대출 예약서비스

낮시간 도서대출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야간 도서대출 예약 서비스

- 이용대상 : 한마음도서관 회원
- 신청방법 :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수령방법 : 1층 안내데스크 (18:00~22:00)

※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맘(mom)편한 도서 배달 서비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7개월 이상 임산부~36개월 이하 영아양육자) 회원님께
집으로 도서를 직접 배달·회수하는 편리한 서비스

- 이용대상 : 거창군 주소지를 둔 7개월 이상 임산부~36개월 이하 양육자
- 신청권수 : 1회 10권까지 / 월 2회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대출/반납 신청
- 도서배달 :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배송 및 회수
- 신청마감 : 매주 목요일 15:00 마감

※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호대차 서비스

한마음도서관과 관내 공립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의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반납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 이용대상 : 한마음도서관 회원
- 신청권수 : 1인 3권 이내
- 대상자료 : 소장자료 중 '대출가능' 자료
- 신청방법 :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수령방법 : 매주 수요일, 목요일 도서 도착/개별 문자 발송
- 신청마감 : 매주 화요일 24:00 마감

※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